

정해민씨는 대단히 뛰어난 예술가다. 2년 전쯤 만났는데, 아! 진짜 예술가란 이런 거구나! 느껴질만큼 신선했다. 82, 83학번 새로운 세대의 예술적 감수성에 충격을 받았고, 영혼의 빛과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빠죽겠다 등으로 칭찬을 자주 했었다.

정해민씨는 사진과 미술 전문가였는데, 앞으로의 내 예술의 개화도 그의 성과가 반이다. 그를 통해서 나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보다 풍부한 형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시인으로서 혁명가로서 새롭고 깊은 숙고를 할 수 있었다."

"김진주씨와의 불화는 보다 뿌리깊고 복잡한, 깊은 역사성과 조직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문제이다. 사랑이란 결혼이나 호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 식었을 때, 결혼은 의미가 없다. 시인의 사랑, 나아가서 혁명가의 사랑은 나날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의 영혼에 빛과 향기, 매력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것이 나의 애정관이고 앞으로 내가 집필할 「한 혁명가의 사랑철학」의 내용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2년 전쯤, 우리에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순간이 있었다. 대화에 벽이 생기고, 서로의 영혼이 고양되지 않았다."

"김진주씨는 당시 병가 상태였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보낸 편지가 안기부에서 드러났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건강이 호전되면서 일정 부분 반성하고 체포 직전에는 꾸준히 노력하는 단계였다. 서로의 상처를 빛내면서 울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삶이고 사랑이고 부부 아닌가. 나 자신이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에게 최대한 성실했는가? 박노해의 아내 아닌 혁명가 김진주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반성하고 있다. 김진주씨와의 완벽하지 못한 관계가 체포로 이어지고 체포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기부에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

기나긴 수배생활 당시 박노해는 압구정동에서 비밀 회합을 하면서 독점자본주의 위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하게 되었다고 했다.

북한처럼 '순수하지만 가난한 사회주의 사회'가 독점자본주의 사회의 광고에 의해서 개발된 다양한 욕망의 구조를 가진 남한 노동자들에게 설득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한다. 그는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도 상품이다. 사회주의의 내용과 형식, 포장도 변화하는 사회와 대중의 구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체포 직전 여러 편의 '광고시'를 구상중이었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시, 최고의 선동문은 광고다. 광고를 뚫지 못하면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광고시를 구상했다며, "재판장님 짚막하게 한판 해볼까?" 의사를 부렸다. "요즘 편안하십니까 / 비록 트라이는 못 입었지만 편안합니다 / 지가요 공장에서 한판 벌였길랴요."

감옥에 들어온 뒤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구상은 조직의 동지들이 '혹시 박노해가 전향한 것 아닌가? 혹은 너무 우경화했다고 반발을 일으킬 만큼' 급속도로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노동이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확신, 그리고 전위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미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요즘 포스트모더니즘과 민속학을 공부중이며, 「아르바트의 아이들」과 「사람아, 아 사람아」를 감명깊게 읽었다고 한다.

우리가 걸어온 길

박노해. 그는 살아 움직이는 대단히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한 인간이다. 필자는 안기부와 사노맹,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상반된 평가, 이 세 그물망의 교차와 명암을 통해서 인간 박노해의 윤곽을 포착하고 싶었다.

눈을 감아 본다. 그가 걸어온 길. 철길을 따라 발두렁 황토흙에 버려졌던 함평 고구마, 그가 처음 발을 내딛었던 72년의 서울역, 양동의 더러운 골목길, 구로공단의 모래바람을 떠올린다. 한 청년 노동자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온 길이다. 그 길은 어디로 뻗어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박노해와의 면회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서면 인터뷰도 원고마감 일정상 실현되지 못했다. 안타까웠다. 많은 것을 묻고 싶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반성하고 있습니까?" 밤하늘에 높이 뜬 붉은 별의 신화, 혁명의 신화는 붕괴되고 말았는가? 전위탄생의 신화, 사노맹 불패의 신화는 추락하고 말 것인가?

박노해. 그는 이제 높은 담과 부자유, 외로움 속에서 정역을 산다. 그는 재판의 말미에서 "묵상하고 절필하고 반성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박노해의 자신에 찬 낙관보다는, 오히려 그의 '반성과 묵상'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그의 뼈아픈 반성과 자기통찰의 아픔 속에서 우리 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빛을 발견하고 싶다. ▣

•인권

폭력의 성채 전주교도소를 고발한다

전주교도소의 30여 양심수들은 괴롭다. 언제 무슨 이유로 교도관들의 발길에 채이고 포승줄에 묶여 거꾸로 매달릴지 모른다. 몇 번씩 단식투쟁으로 저항했으나 허사였다. 한 출옥 양심수는 갇힌 자들의 절박함을 이렇게 호소해왔다.

조원호(전주교도소 출소자)

탈옥사건 이후 양심수 본격탄압 나서

흔히들 교도소를 인권의 사각지대라 한다. 15척 담장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수인들은 단 몇 미터도 채 되지 않는 바깥세계와는 완전히 격리된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 누구도 자세한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하는 금단의 땅이 되어 왔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교도소의 이야기들은 실제 내용의 몇분의 일도 채 못되는 단편적인 것뿐이다. 교도소에서는 수없이 사람이 죽어 나가지만 대부분이 자살로 처리된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사의 내막은 알려지지 않는다. 또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력행위와 가혹행위, 수치심 자극 등의 인권유린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교도소에서 비교적 대우를 받고 있는 양심수의 처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연히 일반수의 모습도 짐작이 되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89년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부산·울산지역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수배·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90년 11월 12일 전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91년 7월 14일 만기출소 때까지 복역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전주교도소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 사이에 겪었던 일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교도소의 단면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90년 12월 28일 교도관들의 근무 부주의로 탈옥사건이 발생하여 탈옥수 전원이 자살·체포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흘 후인 12월 31일 오전부터 교도관들은 각 사방에 비치되어 있던 선반과 책상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철거했다. 이에 양심수들이 항의를 하자 명령불복종이라는 구실로 전원을 시승시감(포승줄로 팔뚝과 손목을 묶고 수

갑을 채우는 것)을 해버렸다.

오후 3시경, 양심수 전원은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보안과 앞 잔디마당으로 끌려갔다. 그곳에 당도하자마자 교도관들은 우리들의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보안계장 소준렬의 지휘로 4~5명이 한 조가 된 교도관들에 의해 두 다리가 포승줄에 묶인 채 거꾸로 들어 올려져 두 발바닥을 경찰 진압봉으로 수없이 맞았다. 비명소리가 너무나 커지자 교도관들은 양말로 우리의 입을 틀어막았다. 폭행을 당한 양심수 중에는 쉰 살이 넘는 장기수 김윤수씨도 있었다. 그들은 "이런 새끼들은 모두 죽여야 돼. 양심수 좋아하네" "삼청교육에 비하면 이견 약과야" "너희놈들 때문에 탈옥을 했어" 등의 소리들을 거침없이 해댔다. 밤 8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자술서를 쓰고 경비교도대들에 의해 들려오다시피 하여 사방에 돌아왔다.

단식했다는 이유로 발바닥 구타

양심수 전원은 곧바로 항의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나 91년 1월 2일 오후에 또다시 교도관들이 수건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보안과로 끌고가 단식을 왜 하느냐며 진압봉으로 발바닥을 때렸다. 이 사건 이후로 교도관의 군화발 소리만 들려와도 또 끌려갈까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심리적 불안정상태가 근 한 달 간이나 계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필자는 왼쪽 발바닥이 찢어져 세 바늘을 꿰맸다. 신일철씨(인하대 86학번)는 발바닥이 짓물러 터졌고 김승수씨(울산대 87학번)와 김윤수씨(장기수)는 발바닥 뼈가 부러져 기브스를 했는데 이중 김윤수씨는 아직도 목발을 짚고서야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다.

1월 8일 미결 양심수가 출소하여 폭행사건을 사회에 폭로했다. 이에 맞추어 우리는 폭력교도관에 대한 고소장



집필허가, 폭행관련자 전원처벌, 평화로운 소내 분위기 조성 등의 요구를 걸고 8일간의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보안과장 주규태는 "고소장 집필은 절대로 허가할 수 없으니 직무유기로 나를 고소하려면 해라"면서 청원권이라는 재소자의 기본권마저 무시했다. 이때 신민당 오아부개 의원이 찾아와 우리들 가운데 신일철씨를 만나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가족들과 연락할 수도, 재야인권단체들의 지원도 없어 아무런 성과없이 단식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1월 31일 강제 식발을 한 지 한 달이 되자 다시 강제 식발을 강행했다. 폭행사건을 현장지휘했던 소준열 보안계장은 김선중씨(고려대 79학번)에게 "너희들 두들겨 패도 별일 없네"라면서 자신만만하게 강제식발을 진행시켰다. 한 달이 지난 2월 28일 또다시 강제 식발을 하려 해, 우리들은 "강제식발은 양심수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패배주의를 심어주고자 하는 양심수 탄압책동"이라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자 교도소측은 작전을 바꿔 옆머리만 치자고 해 우여곡절 끝에 타협을 했으나 서우근씨(효성중공업 노동자)는 이를 거부하여 강제식발을 당하고 징벌방에 8일 간이나 갇히는 치욕도 당했다.

"너보고 도둑놈이라 불러줄까?"

계속되는 교도소측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3월 20일 오전에는 검방(재소자의 방을 수색하는 작업) 과정에서 검방 담당이 일반수에게 거친 말을 했다. 이에 일반수가 항의하자 담당은 "반말을 하지 않으면 너보고 도둑놈이라 불러줄까?"라며 되레 회롱을 했다. 같이 있던 필자가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소자라

지만 기본적인 인격은 존중해줘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하자 "네 일 아니면 빠자, 이 새끼 보안과로 끌고가"라는 소리와 함께 교도관들이 필자를 무차별 구타하면서 보안과 지하실로 끌고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옆에 있던 공사용 철근으로 필자를 후려치고 피가 통하지 않아 혈관이 부풀어 오르도록 손목에 수갑을 꽂 채워 끌고 다니면서 4명의 교도관이 번갈아 가며 폭행을 가했다. 그중 한명은 "나 오늘 애 갖고 놀아야겠다"며 수치심을 자극하기도 했으며 "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니 인격적으로 대우해줄 수 없다"는 등의 폭언을 계속했다.

이에 기결 양심수 전원은 폭력교도관 처벌, 교도소장 사과, 고소장 집필허가, 폭력행위 근절 등의 요구를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자 보안과장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교도관에 대한 교육은 하지만 어떻게 우발적인 사고까지 막을 수 있느냐" "담당 1명을 경고처분했으니 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전주 NCC와 변호사가 필자에 대한 집견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측은 이를 불허하고 가족들의 고발이 있으면 그때는 집견을 허용하겠다고면서 그냥 돌려보냈다. 그런 다음 필자에게는 "고소장은 절대로 쓰게 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라"고 말했다.

양심수들이 이런 처우를 당할 정도니 일반수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중 면회를 가족도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일부러 "인민 공화국 만세" "김일성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쳐 국가보안법으로 추가 기소되기를 자청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다. 즉, 법정에 나가 최후진술을 통해 소내의 폭력행위를 폭로하려는

것인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당한 폭행을 외부에 알릴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양심수들이 생활하는 사동에는 일반수들이 함께 있고 또한 징벌방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위가 소란하여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수들은 독립사동을 계속 요구해왔다. 교도소측에서는 애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12월 사건으로 보안과장이 바뀌고 나서는 이를 전면 백지화해버렸다.

그러다 6월 5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양심수 전원을 독립사동으로 옮겨 수용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집필도구나 책상·운동시설 등의 지급은 전혀 없었다. 집필도구나 책상의 경우 12월 사건 이후 강제압수를 당해 라면상자를 얹어놓아 책상으로 쓰거나 양동이를 뒤집어 의자삼아 앉아 책을 보았다.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해서 집필도구와 책상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면담하자고 불러내 포승줄로 묶어

독립사동으로 옮긴 후인 6월 25일 소장 순시 때 우리를 대표해 신남희씨(삼민동맹사건 관련자)가 집필 허가를 다시 요구했다.

의외로 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교무과장은 "집필허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포기하라"며 말을 뒤집었다. 게다가 현 소장은 3~4일 후면 전근을 간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알은 속임수에 분노한 우리들은 6월 27일 아침 입장을 거부한 채 소장면담을 요구했다. 오후가 돼서야 보안과장은 양심수들중 연장자인 홍성담씨를 불러 "집필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는 일단 기다리기로 하고 입장을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어느때라던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식수를 받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감방문을 열지 않는 것이었다. 보안과에서 방문을 열지 말라며 담당교도관에게도 열쇠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오후 3시쯤 됐을 때 갑자기 보안과장이 우리 중 홍성담씨(민미련 의장)와 김선중씨(고려대 79학번)를 면담하고 싶다고 하면서 보안과로 데려갔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면담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시승시감해서 강제식발을 하고 징벌방에 가두었다. 나머지 양심수들도 면담을 핑계로 한 명씩 끌려가 시승시감과 강제식발을 당하고 나서 징벌방 두 곳에 나뉘어 갇혔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과장은 신남희씨에게 "내가 전주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너희들을 곱으로 징역 살리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다음날 오후야 시승시감을 해제하고 세 곳의 사동으로

분리 수용했는데 홍성담씨는 포승줄이 너무 죄어져 팔뚝에 밧줄 자국이 깊숙히 패여졌고 대부분의 양심수들도 교도관들의 감정적인 행위로 손목에 수갑상처가 나고 붓기도 했다. 방양근씨(서경원 전 의원 비서관)의 경우는 다친 허리가 재발되어 계속 사방 안에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건지도 못하는 상태인데도 보안과로 끌려가 수모를 당했다. 또한 이러한 자신들의 폭력적 행위가 외부에 유출되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바닥 뼈가 부러져 아직도 목발을 짚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김운수씨를 7월 3일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보냈다.

전주교도소에서는 양심수들에 대한 폭력행위와 비인격적인 처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는 이의 시정을 위해 몇 차례씩 단식 등 극한 투쟁으로 싸워왔으나 외부와의 연락두절로 별 성과 없는 싸움만 계속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인권유린은 비단 전주교도소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교도소에서 벌어지고 있다.

외부의 지원과 관심 절실

현재 전주교도소에는 기결수만 해도 10여명의 장기수들과 20여명의 시국사범이 수용돼 있다. 교도소측은 이제까지의 양심수 탄압이 큰 사회적 물의 없이 무마된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대화보다는 강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재소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으며 자신들은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양심수에 대한 처우는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다. 사회에서 민주화의 열기가 드높을 때는 상당히 유효적이지만 정권이 정세를 주도해나간다면 무자비한 가혹행위가 벌어진다. 올봄 5월투쟁이 힘차게 진행되는 동안 대단히 부드러운 전주교도소측이 6월 광역의회 선거에서 민자당이 압승하자마자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선 것은 좋은 예이다.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지원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이런 탄압은 전국의 모든 교도소로 확산될 것임에 틀림없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탄압을 '모범사례'로 삼을지도 모른다.

법무부는 요즘 "재소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재범의 우려를 없애고 건강한 민주 시민을 만들어내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았으므로 교도소내 방송을 통해 재소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진정 교도행정의 목적이 그러하다면 교도소가 아니라 형무소인, 교정교화하는 교도관이 아니라 폭력적인 형무소 간수들인, 교화가 아니라 묶고 두드려 패는 전주교도소의 만행은 지금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